

# 삼의 홍해바다에서 (출14:10-20)



## 생각해 보기!

◆ 한 주간 어떻게 지냈는지 함께 나누어 보아요.

◆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쫓아 오는 이집트 군대를 보고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는 것을 보고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향해 자신들을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이끌고 나온 것이냐는 불평을 했습니다.

◆ 모세는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 13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지켜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나오게 된 사건부터 시작하여 이 모든 것이 모세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끄시는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시고, 또한 그들을 쫓아오는 이집트 군대를 물리치시는 일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며,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으며 우리 앞에 놓여진 문제들을 향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끝까지 믿음을 놓지 않아야 합니다.

10. 바르가 다가오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개를 들고 보니,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추격하여 오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크게 두려워하며, 주님께 부르짖었다.
11.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며 말하였다. “이집트에는 모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다 끌어내어 죽이려는 것입니까?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여기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다니,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12. 이집트에 있을 때에, 우리가 이미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 나가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나으니, 우리가 이집트 사람을 섬기게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13.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 보십시오. 당신이 오늘 보는 이집트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14. 주님께서 당신들을 구하여 주시려고 싸우실 것이니, 당신들은 진정 하십시오.”
15.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왜 부르짖느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라.
16. 너는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팔을 내밀어, 바다가 갈라지게 하여라.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갈 수 있을 것이다.
17. 내가 이집트 사람의 마음을 고집스럽게 하겠다. 그들이 너를 뒤쫓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바르와 그의 모든 군대와 병거와 기병들을 전멸시켜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18. 내가 바르와 그의 병거와 기병들을 물리치고서 나의 영광을 드러낼 때에, 이집트 사람은 비로소 내가 주님을 알게 될 것이다.
19. 이스라엘 진 앞에 있던 구름기둥도 진 뒤로 옮겨가자, 진 앞에 있던 기둥도 진 뒤로 옮겨가서,
20. 이집트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를 가로막고 섰다. 그 구름이 이집트 사람들이 있는 쪽은 어둡게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쪽은 환하게 밝혀 주었으므로, 밤새도록 양 쪽이 서로 가까이 갈 수 없었다. <새번역 14:10-20>

##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

출어구는 “하나님이 ~ 말씀하셨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구절들

- ◆ 홍해 사건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 이집트 군대를 물리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구원의 역사를 보며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 뿐만 아니라 이집트와 그 주변의 많은 나라에게도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사건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홍해사건은 자신들을 이끌어 내신 분이 누구이신가가 드러나고 확인된 사건이었습니다.

- ◆ 오늘 나는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나요?

☞ 자신의 생각을 적어 보세요!

## 마무리 하기!

- ◆ 이번 한 주간 각 자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함께 기도해요.
- ◆ 한 주간 함께 기도해야 할 제목들을 적어 보아요.
- ◆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어려운 상황들이 있지만, 이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며, 아프고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친구들이 되어요.

이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하게 된 사건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주님께서 당신들을 구하여 주시려고 싸우실 것이니, 당신들은 진정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말씀에 나타나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직접 싸우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는 결코 죽은 우상을 섬기는 헛되고 무능한 종교가 아니라, 구체적인 성도의 삶 속에서 능동적으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구원의 종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곧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허무함과 그들을 직접 벌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온 세상에 전파하게 되는 사건이 바로 홍해사건입니다.

또한, 모세가 말한 '당신들은 진정하십시오.'라는 말의 의미는 '침묵을 지키다'라는 뜻입니다. 즉, 더 이상 불평하는 말을 하지 말고, 조용히 기다리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단독 사역을 묘사한 표현입니다. 초선을 다한 후 인간으로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극한 상황에서 마지막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은 그 상황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믿음'입니다. 뒤쫓아 온 이집트 군대를 보고 겁에 질려 모세를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홍해 사건을 경험하고 난 후에는 모세를 하나님의 종으로 전폭 신뢰하게 됩니다.

##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현석주

아무-것 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

놀라지마라 - 겁내지마라 - 주님을 지켜주시네 -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을 지켜주시네

세 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을 지켜주시네 -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Copyright (C) 현석주. Used by Permission.